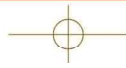




물류발(發) 두드림(Do Dream) “글로벌 창(創)을 열다”

기계가 세상을 바꾸던 날들이 있었다. 이제는 그 오래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의 생각 그 자체가 세상을 숨쉬게 하는 꿈을 꾸는 세상이다. 그것이 창조 경제의 이상이며 비전일 것이다. 생각의 전환, 유연한 사고, 창의적(創意的)인 아이디어를 가능케 하는 '창의 생태계'의 조성. 그것이 미래 창조국가의 이데아일 것이다. 작은 창의가 큰 창조로 자라나고, 일상의 사소한 역발상이 거대한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시대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 창의가 권장되고 창의적 결과가 제값을 받고 창조를 이끄는 사람이 제대로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야 대한민국이 창조국가가 될 것이다. CLO는 창간 두돌을 맞아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리더링 물류기업들을 소개한다.

(editor)





세계 최고 부호 2인방의 선택 '물류'

글. 김철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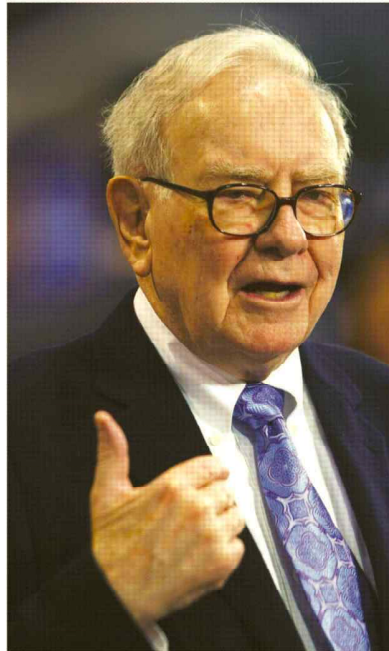
※이 기사의 제작에는 CLO 인턴기자 송인택(인하대 아태물류학부 3학년)씨, 송훈민(해양대 물류시스템공학과 4학년)씨가 참여했습니다.

2009년 11월 3일, 세계 최고의 부자인 워런 버핏은 벌링턴 노던 산타페라는 미국 철도회사 주식을 440억달러를 쏟아붓는 일생일대의 투자를 단행했다. 시카고에서 미국 남부 멕시코만과 서쪽의 북서부 태평양 연안에 이르는 미국 최대의 노선망을 확보하고 있는데 석탄과 곡물, 철강 등 원자재부터 컨테이너, 화학품, 자동차와 각종 소비재까지 운송 품목도 다양하다.

그는 '바야흐로 철도의 시대가 왔다'는 말로 투자 이유를 설명했다. 철도 운송은 자동차 운송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분의 1에 불과한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버핏은 "미국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말도 덧붙였다.

며칠 전 버핏의 절친한 친구이며 투자자인 빌 게이츠가 또 다른 철도회사를 인수했다. 투자의 측면에서 인수를 했다고 여길 수도 있다. 일련 사건이 연관성이 있다.

버핏과 게이츠의 철도망을 합치면 북미 지역의 대부분을 커버하는 운송망을 갖게 된다. 둘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손에 넣을 수 없어진다는 것이다. 정보의 독점화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물류의 독점화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생존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워런 버핏

게이츠의 친구인 버핏도 철도 산업이 저물고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철도주에 의욕적으로 투자한 바 있다. 버핏은 그의 지주사인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미국 제 2위 철도회사인 '벌링턴 노던 산타페'의 지분을 꾸준히 사들여 지난 2007년 이 회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 데 이어 지난 2009년에는 무려 440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 77%를 인수한 바 있다. 이 금액은



빌 게이츠

버핏 회장이 투자한 금액 가운데 최대 규모였다.

단순한 투자일지도 모른다. 세계 1, 2위의 부자인 그들의 행보가 같다는 것은 단순한 투자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 그들의 행보는 멀지않은 미래에 어떤 의도인지는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